

배우 이유진과 임실 매력 알린다

군, '임실엔TV' 개편... 신규 영상 콘텐츠 '최고의 한 잔' 연속성 시리즈 운영

임실군이 배우 이유진과 함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소통 강화에 나선다.

군은 신규 영상 콘텐츠 '최고의 한 잔'을 선보이며,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속형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단발성 홍보를 넘어 2주 간격으로 제작·공개되는 '연속형 시리즈'로 기획됐다.

특히, 도시 청년 배우 이유진의 시선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임실의 다양한 매력을 보다 친근하고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배우 이유진은 다양한 작품에서 안정적인 연기력과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대중에게 호평을 받아온 배우로, 청년세대의 감성과 공감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임실군은 첫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3월 31일 공개한 1화에서는 산업무장을 배경으로 산양을 돌보고 직접 컷을 짜보는 체험을 통해 원유생산과 가공까지의 전 과정을 조망한다. 이를 통



임실군이 배우 이유진과 함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소통 강화에 나선다.

해 임실치즈·유제품 산업의 기반이 되는 낙농업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 '치즈의 고장 임실'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2화에서는 딸기농가를 운영하는 20대 청년농부를 찾아, 배우 이유진이 도시 청년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농촌청년의 삶을 조명한다. /임실=전홍영 기자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 본격화

남원시, 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남원시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기반으로 드론 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 남원시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4월 7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 규제특례를 활용해 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드론 기



술을 검증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3개 내외의 기업을 모집하여 총 1억 5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2024년부터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올해는 단순 실증을 넘어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상용화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 지역 특성과 공공수요를 반영하여 △산림 △안전재난 △국산 드론 고도화 등 3개 분야로 추진, 산림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국산소형드론(FPV)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메달 릴레이' 이어가

순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과 소프트테니스팀이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강군' 순창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역도팀은 지난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6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및 제23회 전국남녀주니어역도대회'에 출전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남자 75kg급(주니어)에

출전한 장서진 선수는 인상, 용상, 합계 전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대회 3관왕에 오르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황수민 선수(95kg급)는 인상 종목에서 157kg을 들어 올리며 은메달을 거머쥐 실업팀 데뷔와 동시에 경쟁력을 보여주며 팀 전력에 힘을 보탤다. 소프트테니스 종목에서도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순창에서 열린 '제47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



서 남지탑 조성준 선수는 개인단식 결승에 진출해 접전 끝에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순창의 슈퍼스타 여자팀 하야시다 리오 선수는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꾸준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나선다

남원시, 6차산업 돌봄·통합마케팅 지원 등 8개 사업 추진

남원시가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제조·가공, 체험·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자립형 경영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6차산업 돌봄 지원 △농식품 부산물 활용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창업 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제조·가공 기반을 강화하고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진흥식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제조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그동안 남원시는 6차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8개소에 10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가 25개소에서 40개소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30억 원 규모의 특화 품목 6차산업화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산물가공센터 기계장비시설 지원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창업 코칭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 상품기획, 온라인 유통 등 창업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특화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농산물가공 교육센터에서는 과제주스 공정 개선과 남원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추진하여 품질 고도화와 소량·다품목 제품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 가공시설 확충, 브랜드 고도화, 체험·관광 연계 확대와 함께 청년·학교 졸업 및 수출 연계를 통해 6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통합돌봄 특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이 의료·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날 3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희망병원, 순창시니어클럽, 순창지역자활센터, (유) 두레건축 등과 함께 '2026년 순창군 통합돌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통합돌봄 특화사업은 퇴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

남원농기센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컨설팅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컨설팅'을 추진한다.

해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제시 △이행 점검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 인력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사고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참여 농가를 총 3회 방문

신청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주 중심이며, 특히 5인 이상 고용 농가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요건 검토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전북 소방동요 경연대회 초등부 팀 모집

순창소방서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안전 수칙을 즐겁게 배우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할 초등부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순창군 관내 동일 초등학교 학생 1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팀이며, 인원 부족 시 인근 기관과 연합하여 팀을 구성할 수 있다.

경연 종목은 소방청에서 제작한 소방동요를 합창하는 방식이며, 율동을 포함할 수 있다. 참가 곡은 2025년 소방청 제작 동요곡 중에서 선정하거나, 기존 소방동요 외의 곡을 소방 관련 내용으로 편곡 및 창작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대상 2팀(유치부 1, 초등부 1)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여하며, 최우수상과 금상 등 총 17명의 상장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팀은 오는 9월 광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27회 전국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전북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지도교사에게는 교육감상이 수여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달입니다'

임실군(군수 심민)은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사업연도 종료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포함된다.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실=전홍영 기자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